

오감이 다 중요하지만,
결국 시각에 많이 의존하지 않나요?

맞아. 인간에게 시각정보가 가장 많이 쓰이지. 다른 동물에 비해 비교적 시각이 잘 발달했거든. 그게 중요한 시사점이니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자.

인간의 시각이 왜 발달했을까? 두 발로 서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,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은 눈높이가 낮아 아무래도 땅을 많이 보게 되지. 반면 인간은 두 발로 걸으면서 땅과 멀어지니 후각이나 촉각보다 시각이 더 중요해졌어.

또한 초식동물은 넓게 보며 경계를 해야 하니 눈이 머리 양쪽에 있잖아. 반면 육식동물은 먹잇감과 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니 쌍안시인데, 인간도 쌍안시야. 쌍안시를 가지면 2차원을 보고서도 3차원의 입체감을 가질 수 있어. 입체감이 있으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. 상상을 할 뿐 아니라 상상을 공유할 수도 있어. 풍경을 원근법으로 그려서 보여주면, 보는 사람도 입체감을 느끼듯이.

이만큼이나 인간은 시력 즉 ‘보는 힘’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는데, 그걸 과학의 힘으로 더 좋게 만들었어. 망원경으로 멀리 보고 현미경으로 크게 볼 뿐 아니라 고속 촬영을 통해 물체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됐지.

이렇게 보는 능력이 발달하니 호기심도 늘고 견문을 넓히겠다는 욕구가 강해진 거야. 다른 동물은 이런 게 없어. 인간은 시력 덕분에 그러한 열정이 생긴 거지.

그런 열정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보려는 욕구가 되었고, 이를 위해 아무도 가지 못한 곳에 먼저 가려고 해. 그래서 저 옛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거고, 얼마나 극성이면 달까지 가겠냐고.